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1. 9.(목) 06:00 < 1.9.(목) 석간 > 배포 2025. 1. 8.(수)

11개 주요 업종별 2025년 산업 전망 및 통상대응 등 현안 논의

- 제1차 산업정책 민관 협의회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안덕근)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.9일(목)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,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의 산업 전망과 통상대응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. 이날 협의회는 지난 12월 산업부 장관 주재 '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'의 후속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,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들이 참석하였다.

올해 우리 실물경제는 주력품목의 수출여건 악화와 경쟁국의 시장잠식·기술추격에 더하여,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(新)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. 이에 산업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, 수출·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, 주력산업의 위기극복,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산업화 등을 주요 테마로 제시했으며,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업종별로 중점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하였다.

이날 협의회에서 업종협회는 미국 신(新)행정부 정책 등 주요 통상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통상기능 역량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관세·비관세 정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. 또한, 정부와 함께 반도체, 자동차,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,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 마케팅·인증 등 지원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"민관이 협업해야 대내외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" 이라며, "이럴 때일수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" 고 강조하였다. 또한, 미국 신(新)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(對美) 활동에 있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, 민간의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정부와 공동 대응 해주기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경모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	홍승범(044-203-421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제1차 산업정책 민관 협의회 개요**

□ 일 시 : '25.1.9일(木), 10:00~11:20(80분)

□ 장 소 : 대한상의 EC룸

□ 참석자

○ (정부) 산업정책실장, 반도체·자동차·철강세라믹 과장

○ (협회) 첨단 반도체·배터리·바이오·디스플레이·전자·섬유,
제조 자동차·기계·조선, 공급망 철강·석유화학 각 협회 본부장

□ 논의내용

○ 2025년 주요 업종별 전망 및 주요 정책

○ 각 업종협회별 2025년 주요업무 및 미국 新행정부 대응방향

□ 진행 순서(안)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0:00~10:03	3′	모두발언	산업정책실장
10:03~10:18	15′	2025년 산업 전망 및 주요 업종별 전망·주요 정책(반도체·자동차·철강)	산업부
10:18~11:03	45′	업종협회별 2025년 주요업무 및 미국 新행정부 대응방향	업종협회
11:03~11:18	15′	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1:18~11:20	2′	마무리발언	산업정책실장